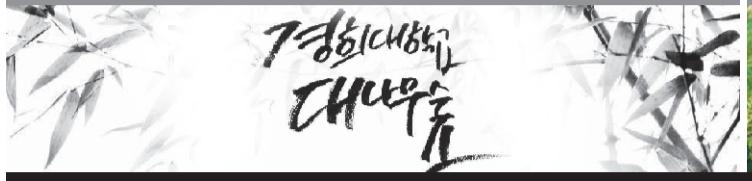


4~5》 교내SNS논란



8》 '병윤네 무인마트'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실적등록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6년 11월 1일(월) ~ 2016년 11월 24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실적등록 신청서,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소감문
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통이 있어야 참된 대학교육이 있다

건강한 대학자율을 요구하는 경희대학생 기자회견

장소: 경희대학교 본관 | 일시: 2016년 8월 29일 오후2시

(사진=권유진 기자)

'대학본부의 합의없는 자율예산 축소' 학생들 기자회견·항의농성 열어

자율없는 자율예산

권유진 기자 hahayj123@khu.ac.kr

'자율예산'을 둘러싸고 학생과 대학본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학과 자율예산정상화특별위원회 등 '건강한 대학자율을 원하는 경희대학교 학생 일동'은 지난 29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건강한 대학자율을 침해하는 경희대학교 본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예산 축소, 피해는 학생 몰’

총학생회 단재민(미술학 2010) 부 학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이후 학생지원비, 실험실 습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제까지 약 79.5억 가량이 줄었다”며 “본부에서는 이미 예산을 배분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단과대 등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어찌한 집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율예산 축소의 여파로 정기 담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과 최은혜(사학 2013) 학생회장은 “학교의 예산구조개편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건 학생”이라며 “사학과 자율예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 1월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동안 본부와 소통할 수 없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와 학생의 직접적인 소통, ‘예산구조 개편에 학생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 최은혜 회장은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예산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탓에 학생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자율예산’은 자율운영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단과대학 등 각 자율운영주체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본부의 관련부서는 이를 지원한다. 각 단과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단과대학 특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시행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소통단절로 갈등 심해져’

그러나 2014년 자율운영예산 배정기준을 개정하며 자율예산을 대폭 축소시킨 대학본부에 총학생회가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자율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2009년 자율운영제가 도입된 후 학생과 자율운영 단위 혹은 본부 간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2014년에는 총학생회에서 자율운영예산위원회의 소통과 투명한 자율운영예산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과 5월에도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본부와 논의를 시도했으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과정 공개 요구도

문화대학 박원규(사학 2014) 학생회장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경희대학교는 자율예산제도, 등록금 책정위원회처럼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지만, 등록금책정위원회로 참여한 학생이 예산 운영 과정에 대해 질문하면, 본부 직원이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니 통화결과 알려 줄 수 없다고 통보한다”며 학교의 소통불능을 꼬집었다. 또한 “우리는 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은 경희대학교가 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농성은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소통이 있어야 참된 교육도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뒤, 본관 앞에서 준비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발표된 성명서 말미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율예산 감축의 해명과 해결 ▲현재의 예산구조 개혁과 편성과정 공개 ▲소통하는 행정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논의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관계자

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에 자율예산 관련 TF팀 구성을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총학생회나 다른 단과대학의 주장처럼 소통을 무시한 적은 없다”며 “사학과의 경우에도 부총장 교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소통 무시한 적 없다”

사학과가 속해 있는 문과대 행정실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학과는 춘계답사에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 2학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예산이라도 그 비용에 맞게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은 학과의 자율”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율운영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생과 대학본부와의 소통 문제, 예산 편성 과정과 그 규모를 둘러싼 논란까지,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2013년 말, 조인원 총장은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심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밝혔었다.

과연 이번에는 학생들과 본부간의 의견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대학 자율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ewsmaker

이동진(경제학 2012)
정경대 학생회장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행정심판청구

정현진 기자 ohyunjin@khu.ac.kr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로, 재판 이전에 해당 문제가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학교 정경대 이동진(경제학 2012) 학생회장은 지난달 31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에 대해 최종처분자인 조인원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4일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12~2016 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및 산출근거’,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09~2011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및 산출근거’를 학교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학은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만을 공개했으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2012~2016 학년도 자율예산·산출근거’와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의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해 최종처분자인 조인원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이미 타 대학 사례들과 대법원 사례에서도 해당 청구건이 충분히 공개할만한 정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행정심판청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구했던 자료를 받은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각 단과 대별 통계나 산출공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구성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 청학정신에는 자율운영을 민주화의 꽃으로, 경희 구성원 모두가 제도와 정책의 주체로 바로서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만큼,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말로 이런 취지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학원이 좀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o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포켓몬 고의 열풍과 스토리텔링
민경배 (IT디자인융합학부) 교수 7면



기획 - SNS 사건 · 사고

지난해 10월 동아리 단톡방서 발생 해당 학생 징계···온라인 교육 계획

SNS내 성희롱, 우리학교는?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최근 고려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의 SNS를 통한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우리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 7월 4일 학생회관에 게재된 대자보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월 한동아리 구성원 간 SNS 단체 채팅방 내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는 대화를 주고받아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최고 정학 3개월과 근신처분 등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대자보는 이에 대한 학교의 징계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지인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을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았고, 징계 처분 기간이 방학 기간에 포함돼 징계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성평등상담실 송혜경 팀장은 “징계 수위 결정은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학생상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징계 전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와 여러 차례 상담해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 전부를 담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징계과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전례가 없었던 사건인 만큼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학생상별위원회의 2차례 회의 끝에 징계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유경 상담원은 “사건이 10월에 접수되고 11월까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 조사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2월초에 가해자들이 학생상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징계가 즉각적으로 처리되 방학시기와 겹친 것이지 징계수위를 약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다.

서울대는 이번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학교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신입생 세미나’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SNS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단체 채팅방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학내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밖에 성평등상담실은 신입생 외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 상담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처리 과정 중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비밀 보장 서약을 위반한 정황이 신고되어 그 가해자에 대해 가중 처벌로 정학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사회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이번 우리학교를 비롯한 대학사회의 사건을 통해 대학생들의 SNS를 통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담당 상담원은 사건에 따른 적절한 징계에 앞서, 가해자의 문제인식부재에 따른 인식 제고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 뿐 아니라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SNS 단체 채팅방 성희롱 문제인식 부재

SNS 채팅방은 사적 공간으로서, 제한된 동성 구성원 간 벌어진 음담패설 행위를 선불리 범죄로 규정하고 사회적 단죄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으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SNS 단체 채팅방은 전파 가능성과 기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되는 ‘공연성’이 인정돼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사회에 의한 다른 SNS 성희롱 사건으로 변화한 소통환경에 걸맞는 디지털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도된다.

서울대는 이번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학교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신입생 세미나’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SNS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단체 채팅방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학내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밖에 성평등상담실은 신입생 외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 상담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모성 갈등 발언 제재 ‘적절’… 자

경희대숲, 발언 제재 논란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nu.ac.kr

“혹시 그 폭행범 성별이 어떻게 되요?”

지난달 17일 페이스북 경희대 대나무숲 페이지(경희대 숲)에 모 학과의 강압적인 술자리 분위기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이에 가해자의 성별을 묻는 댓글이 달렸다. 성별 질문으로 시작된 이 댓글은 곧 최근 화제가 된 폐미니즘 논란으로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댓글의 가치 개입을 두고 논쟁이 심화되자 경희대숲 관리자는 이에 제재를 가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여성우월주의’, ‘남성 혐오’ 등을 주장하는 일부 폐미니스트의 자극적인 언행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신장을 외치던 기존 폐미니즘의 기조와는 달리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며 폐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됐다. 곧 폐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회문제로 확대됐고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사태로까지 번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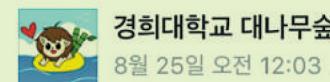
양측의 자극적 발언으로 인한 남성혐오 여성혐오 갈등 심화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댓글에 응수해 성별이 왜 중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별 논란의 장본인인 A씨는 그저 질문일 뿐이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폐미니스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점차 논쟁은 ‘남혐(남성혐오)’, ‘여혐(여성혐오)’의 문제로 이어지며 상호 비방적인 언사로까지 확대됐다.

실제 A씨를 향한 댓글에서는 “가해자의 성별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왜 굳이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용어)을 사용하며 다른 학우들을 성차별주의자로 몰아 가느냐” 또는 “위대한 폐미니스트님”과 같은 언급이 있었고 이에 A씨는 “성 차별주의 폐렴(폐미니즘 혐오의 줄임말) 남학우 분들”, “여학우들이 훨씬 똑똑할 것”이라 응수한 바 있다.

논쟁의 과정에서 A씨가 본인의 SNS에 최근 논란이 있는 폐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응수를 제기한 것과, 갈등을 일으킬 의도로 성별을 묻는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되는 발언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인됐다. 곧 “A가 의도적

경희대 숲 공식 입장문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8월 25일 오전 12:03 ·

*이 글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최근 모 학과의 가혹행위 의심 글과 관련하여, 댓글에서 모 사용자(이하 A)의 성별을 물어본 댓글의 중심으로 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희대숲은 A를 차단하였습니다.

경희대숲은 A가 페이스북 메세지로 공격적으로 항의하면서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페이스북 및 트위터, 언론기관 등을 통해 경희대숲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경희대숲도 입장 표명의 필요성을 느껴 글을 게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희대 숲 학생 발언 제재 논란 추이

경희대숲에 게재된 모학과의 폭행제보글(15882번 째 게시물)에 A씨가 댓글로 가해자의 성별을 물음

A씨의 댓글에 대한 B씨의 비방이 이어지며 ‘성 갈등’ 논쟁 과열

경희대숲 관리자가 A씨의 계정을 차단하고 B씨의 댓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함

경희대숲 관리자의 조치를 두고 ‘폐미니즘에 대한 탄압이다’와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다’ 의견대립

경희대숲에 해당사건에 대한 관리자 측 입장을 밝힌 공지글이 올라옴

인 성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SNS상에 노출되고 개인적인 비방에 휩싸이게 되자 이로 인해 A씨는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됐다.

이처럼 여론이 과열되자 경희대숲이 첫 댓글을 단 A씨의 계정을 삭제하고 이 논쟁을 부추겼다고 판단되는 B의 댓글을 삭제하는 등의 제재 조치에 나서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경희대숲의 제재가 정당한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쏟아지고 곧이어 타 학교의 커뮤니티나 각종 SNS로 까지 회자되며 빠르게 사태가 재 확산됐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한 글은

경희대숲의 이 같은 조치에 관해 옹호하며 A씨가 성별 분쟁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A의 발언은 명백히 차별, 혐오 발언의 의도가 있고 분쟁을 조장하는 유의 댓글”이며 “이를 순수한 궁금증으로 옹호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학교 윤경석(물리학 11)씨는 A씨가 본인을 성 갈등적 요소가 있는 말로 본인을 비하했다며 A씨가 맹목적인 남성혐오의 의도가 있었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경희대숲의 조치에 대해 응호했다.

반면 우리학교 여성주의 웹진 SOON은 입장문을 통해 경희대숲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대숲지기들의 일방적인 검열조치는 학내 다양한 사안의 갈등을

2016학년도 2학기 KHU 사회진출 지원 5 Steps 프로그램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신입생세미나

| STEP | 프로그램명 | 일정 | 문화처 | 주요내용 | 비고 |
|--------|--------|--------------------------------------|---------|-------------------------------------|--------|
| 1 STEP | 신입생세미나 | 5. 23~5. 25 (1주) 11.21~12. 7 (3주) | 취업진로지원처 | 사회진출 마인드부여로 철저한 대학생활 지원전공에 대한 조기 이해 | 신입생 전체 |

임업교수제

| STEP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2 STEP | 임업교수제 (진로상담교수제) (학기별 1회) | 9월~12월 | 지정 교수 (단과대학 및 학과) 교수님과 상담 | 학기당 1회씩 배정된 교수님과 상담 | 미실시자는 수강신청정시 최초 2주 접속불가 |

취업스쿨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 주요내용 | 비고 |
|-----------|--------------|-----|------|----|
| NGO,NPO분야 | 금10:00~11:50 | 한정아 | | |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건설 플랜트분야 | 목10:00~11:50 | 이택상 | | |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공기압/공무원/고시분야 | 화14:00~15:50 | 김성환 | | |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금융분야 | 금16:00~17:50 | 이명현 | | |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멘토링과 함께하는 커리어 컨설팅 | 월10:00~11:50 | 강양수 | | |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바이오/생명/화장품분야 | 수09:00~10:50 | 유재호 | | |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스포츠 미케팅 분야 | 화16:00~17:50 | 이해원 | | |

| 프로그램명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나친 제재, 공론장 역할 '포기'



▲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이 지난 25일 계재한 입장문에 대한 댓글 중 좋아요 수 상위 100건을 추출해 어휘빈도를 분석해봤다. '분란'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성별(57회)', '질문(37회)', '조장(33회)', '페미니스트(31회)', 등의 어휘도 많이 쓰였다. '분란'이 들어간 문장 중 45건이 '분란 조장'만을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A씨를 차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대숲 운영규칙에 따라 차단한 것이 타당했다는 의견은 3건이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일 기준 댓글 1,282건을 대상으로 R을 활용해 진행했다.

침묵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SNS상에서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은 보였다. 또한 SNS상에서 논쟁이 진행되던 도중, A씨의 신상이 유포되고 개인적인 비방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화가 맞지 않는다 하여 상대방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며 지나친 마녀사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번 조치에 서울대학교는 옹호 반면 웨진 SOON은 자유침해

이에 경희대숲은 A씨가 대화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켰으며 성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

에 A씨의 계정을 차단하게 됐다고 밝히며 “A의 가치관 및 성별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희대숲의 제재 기준에 관련해서는 논쟁이 지나칠 경우 어느 정도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어 소송이 일어날 경우 일정부분 법리적 책임을 지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를 비방한 측에 비해 A씨가 가중처분이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서 차단과 삭제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크다고 느꼈으며 이와 관련해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으나 A씨가 가중처분을 받은 것은 부정하며 “상호 비방을 한

것은 맞으나 A씨가 추가적인 분쟁 확대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고 추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태에 관해 양측 모두 과잉반응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함께 제기되었다. 페이스북의 한 이용자는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성별을 묻는 질문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 서로 지나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섣부른 판단과 일방적 비방을 자제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남녀갈등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남녀의 차별을 동등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이퀄리즘’을 제시하며 성 갈등에 대한 치우친 의식도 함께 지적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선후배 간 '위계' 새로운 관계문화 만들기 필요

'러시아어학과 전 학생회장 게시물 논란'

정혜빈 기자 hb6770@khu.ac.kr

러시아어학과 전 학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48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생은 “15, 16들이 선배들한테 못 하는 것”이라는 첫 문장으로 저학번을 지목해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S 군은 해당 게시물에서 “선배는 당연히 선배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더 심하게 당했으니까 15, 16학번은 선배의 행동에 대해 문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2시간 후 게시물은 25일 오전 자정 경에 본인이 자진해서 삭제했다.

시간표 공유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게시물을 토대로 러시아어학과에 선후배 간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생은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잘못된 내용의 글이다”며 “만취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러시아어학과 신입생 A씨는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어학과 후배들에게 하는 말 같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학과 내 강압적인 분위기 의혹... 악습을 멈추기 위한 노력 필요

지금까지 대학 내에 군대문화를 답습한 부조리들을 다룬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학과는 자정의 노력을 거쳐 지금은 지나간 일이 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강압적인 선후배 관계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로 인해 신입생은 기대와 다른 대학생활을 보내야 했다. 러시아어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오토)에는 ‘사발식’과 ‘동기주’ 전통이 있다.

‘챙겨줄테니 마시고 기절해도 참여해’라며 ‘정 못마시겠으면 자리에서 빼져’라고 말하는 등, 선배는 이러한 전통을 강권한다. 비단 신입생 오토만의 일은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학번이 높으면 존대를 쓰고 깍듯이 인사를 해야 하는 ‘학번제’ 또

← 게시물



15, 16 선배들 향기 풍기는 듯한 대나무숲에 글 올립으로서 신입생 애들이 대학생활에 편견을 가지고온다. 선배들이 곤대장 험디구? 우리도 다 당한거야. 그니깐 곤대 이제는 거 이해 안간다 ○ㅋ? 나는 병신들이 선배님이 술 쳐서 10분 등한 참아서 두명 마셨어. 사람이 아니구 나를 이렇게 당한적 없잖아 그들이 편더 사는 대나무숲 험데 그치? 대학생들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며 따라 달린거야. 선배는 당연히 선배 대접해야 되는거야 너네 뭐 회사 가서 대리님 그렇게 일처리 해시면 저희 풍기를 못 따라걸걸요? 이런말 할수 있겠나? 적당히 해라 어ين것들아... 나도 선배들 끽고 뺄 만큼 볕구 이자리에 있는거야 생각 바꿔라. 선배가 사회에서 너 밑으로 들어가는 걸은 절대 없으니까.

그리고 대나무숲 적당히 했으면 이제 그만 없어져라. 니들이 하는거 사랑싸움 그리고 선후배 트러블 밖에 없잖아. 경희대에서 나온다.

중요한거 원치나. 경희대 13년도 기준으로 일절 낚아진다. 선배 험데는 좋길이 하면서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세기풀이. 나는 너네 그냥 공부 조제 대충한 새끼로 밖에 안보이니까 더 분발하구. 몸은 내 학점은 잘나오니까 좋더라. 앞으로 더 표준 미달 학생 들어와라 쿡 쿡 쿡 쿡나야도 넌센 이기겠더다.

한 신입생의 ‘기강’을 잡는데 한 몫을 한다. 15학번 B 씨는 “선후배 관계에 친해져서 서로 말을 놓은 경우에도 다른 고학번 선배에게 흔이 난다”며 “강요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또한 A 씨는 “새벽에 선배에게 전화가 와 마지막에 술자리에 나가야 했던 날이 많아 힘들었다”며 “신입생 중 몇 명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페이스북 경희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제보도 하고 반항도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입생 때에는 분명 선배의 행동이 부당하다 여기지만, 자신이 선배가 되면 부당한 행동을 후배들에게 반복하며 이 ‘전통’이 답습돼왔다. 러시아어학과 현 학생회장인 서민교(러시아어학 2013)군은 “선배가 후배에게 뱉듯게 술자리에 부르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학생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의 악습을 멈추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까지 오토에서 진행됐던 ‘사발식’은 이번 해 15학번의 제안으로 없어졌다. A 씨는 바로 위 학번이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정 학번뿐 아니라 학과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강압적인 선후배관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한 협조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B 씨는 “다음 해 선배가 된 16학번 학생들이 악습을 이어가지 않아야 한다”며 “높은 학번 선배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 이상 기대와 다른 대학생활을 겪는 신입생이 없도록 선후배 사이의 존중을 답습하는 전통이 이어져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 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2.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학점 | 2012-2학기 이전 | 2013-1학기부터 |
|-------|---------------------------------|---|
| 취득 요건 | -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 재수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인정 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donghaeng.seoul.kr), 사회복지시설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단(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의 되어야 함)를 실시한 경우
③ 협약 :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한혈증서 원본, 사본 및 VMS 한혈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문의: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3.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6-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6년 11월 1일 ~ 2016년 11월 24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제 서류를 받지 않을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인증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http://www.khu.ac.kr> -[공지사항] -[일반]에서 반드시 확인

4.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한혈+봉사활동 실적 출석할 경우도 적용) 나. 한 협약, 제출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협약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2006. 2.28 이전 | 2006. 3. 1~2011. 2.28 | 2011. 3. 1 이후 |
|---------------|---------------|-----------------------|---------------|
| 현행증 1장 당 인정시간 | 15 | 8 | 4 |

취업동아리 모집안내

“시사 이수” 동아리

수요일

14:00~15:30

– 신청자격
시사 이수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취업 예정 학생

- 지난 한 주간의 종이 신문 및 TV 뉴스 등을 통해 시사 이수 등을 공유하고 정리.
- 장기적으로는 공체 지원 시 면접 전형 대비하는 효과 기대

“인사·노무” 동아리

수요일

11:30~13:00

– 신청자격

- 인사·노무 직무로 취업을 계획 중인 학생 (교육/총무 직무 제외)
- HRM(인사관리), HRP(인사기획), ER(노무) 직무 관련 이수 등을 공유하고 정리.
- 장기적으로는 공체 지원 시 해당 직무 지원자로서의 직무역량 강화 도모

◆2016년 하반기 공체대비 “기업별 집중 자기소개서 컨설팅”

1. 대상 : 공체 지원 시 Only ‘자기소개서’의 적정성 여부만 컨설팅 받고 싶은 학생.
(계열사 선택, 지원 직무 선택 등의 내용은 배제)

2. 운영 방식 : 기업별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기소개서 Day 운영.

3. 컨설팅 및 장소 : 조유일 (학생회관 105호 제2상담실)

4. 상담 시간 : 1인당 15분

5.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내의 ‘수업/성적/상담’ → ‘취업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

(기준 1:1 상담 신청 방식과 동일)

6. 주의사항

- 1) 자소서는 각 항목별로 모두 완성하여 직접 출력해 오시기 바람.(2부)
(업로드 하여도 사전 검토하지 않음 & 노트북 화면으로 상담 불가)
- 2) 상담시간이 짧은 관계로 반드시 시간 엄수 요망.
- 3) 해당 기업의 자기소개서 Day에는 그 해당 기업의 자기소개서만 상담 가능.

7. 세부 사항

- 1) 시간 계획 : 오전 10시~오후 1시(총 12타임) / 오후 2시~5시(총 12타임)
- 2) 상담 가능 인원 : 해당일 당 총 24명

8. 기업별 컨설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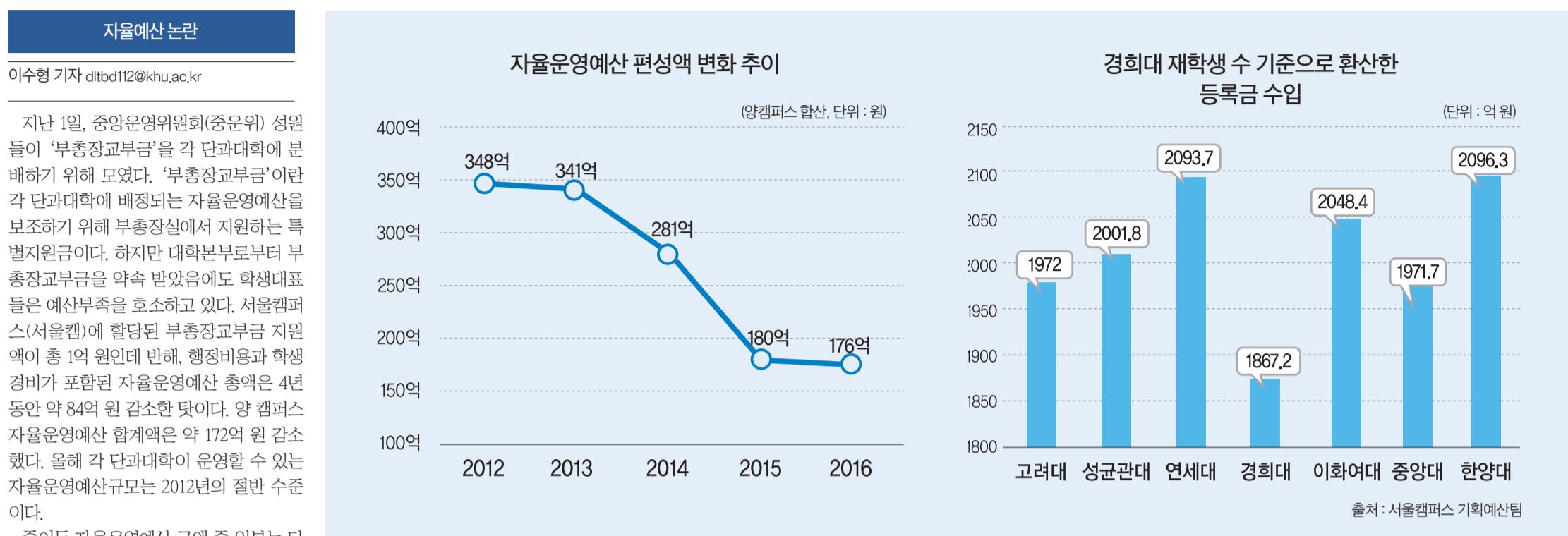
| 기업명 | 현대차그룹 | LG그룹 | 삼성그룹 | SK그룹 |
|------------|----------|----------|-----------|-----------|
| 자소서 컨설팅 일정 | 9월 5일(월) | 9월 8일(목) | 9월 12일(월) | 9월 19일(월) |

9.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8

보도

단과대 가용예산 4년 새 ‘절반’…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이동진 정경대학생회장〉



지난 1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성원들이 ‘부총장교부금’을 각 단과대학에 분배하기 위해 모였다. ‘부총장교부금’이란 각 단과대학에 배정되는 자율운영예산을 보조하기 위해 부총장실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다. 하지만 대학본부로부터 부총장교부금을 약속 받았음에도 학생대표들은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 할당된 부총장교부금 지원액이 총 1억 원인데 반해, 행정비용과 학생경비가 포함된 자율운영예산 총액은 4년 동안 약 84억 원 감소한 탓이다. 양 캠퍼스 자율운영예산 합계액은 약 172억 원 감소했다. 올해 각 단과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운영예산 규모는 2012년의 절반 수준이다.

줄어든 자율운영예산 금액 중 일부는 단과대학이 지출하던 비용이 대학본부 소관으로 이전된 경우다. 우정장학 집행과 조교인건비, 직원인건비, 건축물관리비 집행 등이 대학본부 소관업무로 변경됐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항목 이외의 자율운영예산 감축분은 대학본부 측의 재정축소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자율운영예산 산출공식을 (고정사업비+변동사업비+기타 항목)×95%에서 (고정사업비+변동사업비+기타 항목)×85%로 변경한다거나, 변동사업비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축했다. 심지어 자율운영예산 편성과 외 특별지원금(O&P교부금, 부총장교부금) 지원액 또한 삭감됐다.

서울캠 기획예산팀 측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으며, 타사립대학 대비 등록금 수입이 대단히 적은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과대학 자율운영예산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대학 학기당 평균 등록금(재학생 기준)은 약 3,696,200원으로 타 사립대학 대비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한균태 부총장은 지난 5일에 열린 7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에서 “한양대는 우리보다 등록금수입이 230억 원 많다”며 “바꿔 말하면 매년 재정에서 230억이 적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pace21 기채상환 혹은 기타 고비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긴

축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울캠 기획예산팀 이승민 계장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교비적립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자율운영예산 지원 감축분은 오롯이 대학본부 행정비용으로 흡수됐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 우리학교 등록금 수입 적어 지원 약속 불가능하다

단과대학 재정이 급격히 축소된 탓에 학생지원비와 실험실습비 지출 또한 함께 급감하고 있다.

미술대학 학생회 허건(조조 2011) 회장은 “당장 다음 학기 모델수업에 필요한 모델료조차 없다”며 “관화실 기자재가 고장 나 교수님의 개인 작업실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목공용 장비도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과대학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1월 2차 등책위에서 본래 종학생회(총학)가 대학본부에 요구한 특별지원금은 15억 원이다. 총학 단재민(미술학 2010) 부회장은 당시 10억 원의 학생지원비와 5억 원의 실험실습비를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학생지원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주거비, 교통비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아 총학이 지난해 선거 당시 제시한 ‘교통비·자취지원금 1억 원 신

설’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한근태 부총장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 확충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15억 원 학생경비 지원액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등책위 최종 합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6일, 총학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1억 원은 축소된 학생경비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각 단과대학과 학생대표들이 감축된 자율운영예산을 되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에 자율운영예산 배정액 산출기준을 개정할 당시, 학생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 ‘대학행정워크숍’에서 자율운영예산 삭감안이 발의됐으며, 자율운영예산 책정은 오직 대학본부가 결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등책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이 축소된 학생경비를 보전 받을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다음해에 자율운영예산이 또다시 삭감되더라도 학생들이 예산감축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게다가 특별지원금은 그 금액과 집행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단과대학 예산안을 작성할 때 고려되지 못한다. 또한 중운위가 집행기준을 매년 재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연출되기도 한다. 정량적 지표에 기대 예산을 배정

하면 특별지원금의 취지와 사용처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중운위에서 “자율운영예산이 감소한 충격이 적은 편”이라며 500만 원의 분배를 요청한 경경대학은 1,080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학과 주계고적답사, 철학과 ‘필리아컨퍼런스’ 등 중요 행사 진행이 어려워 학과 정체성마저 훼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한 문과대학은 당초 요구한 1,150만 원보다 적은 650만 원만을 지원받았다.

축소된 학생지원비와 실험실습비를 복구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이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재학생 수 등 정량적 지표를 고려해 분배한 결과다. 지난 1일, 중운위는 각 단과대학, 무용학부, 자율전공학과에 300만 원 씩 배정한 후, 재학생수, 평균등록금 등을 고려해 나머지 금액을 분배했다.

경영상 비밀로 정보공개 거부

경경대학회장, 행정심판 제기

한편, 지난 4년 간 대학본부에 접수된 자율운영예산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5건이다. 이 중, 공개처리 된 건은 단 2건이고, 1건은 면접처리 됐다. 또한 비공개처리된 정보공개청구 중 4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 여부가 번복됐다. 대학본부는 자

율운영예산 관련 정보를 ‘경영상의 비밀로, 공개될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관련 법률조항을 인용하거나 ‘방문열람만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정보를 통제해왔다. 자율예산 배정액 산출공식 등 ‘경영상의 노하우’의 공개여부 판단은 특히 엄격하다. 경경대학 이동진 회장(경제학 2012)은 행정감사 목적으로 지난 1일 미래정책원에 각 단과대학 자율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그 부속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거부당했고 이 회장은 현재 해당 정보 열람을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호텔관광대학 박한진(조리·서비스경영학 2014) 회장은 3차 등책위 당시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학생들은 실습비를 53만 원 씩, 총 3억 원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박원규 회장(사학 2014)은 7차 등책위에서 “총학생회 세미나실 보수비용 4,700만 원 집행과정, 자율예산 증감분석자료 등의 정보를 학교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학교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큰 폭으로 감축된 자율운영예산에 뒤늦게 행정감사에 나서고 있는 각 단과대학 학생대표들은 대학본부의 정보통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www.facebook.com/khunews

<http://media.knu.ac.kr/khunews>

20년 세월이 깃든 포켓몬 고의 교훈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비결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자인융합학부 교수

지난 여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왔다. 비엔나에 가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곳 중 하나가 벨베데레 궁전이다.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궁전 안에는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시슬레 등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다. 벨베데레 궁전에 도착해보니 출입문 유리에 예상치 못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노란 피카츄가 양증맞은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포스터였다.

내용을 알아보니 미술관 아래 지금껏 단 한 번도 실내 작품 활용을 허용치 않았던 이곳에서 당분간 스마트폰 카메라에 한해 활용을 허용 키로 했다는 것이다. 미술관 안에서 포켓몬 고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이 위낙 많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한다. 유서 깊은 미술관이 오랜 세월 굳게 지켜왔던 전통과 규칙이 포켓몬 고 게임 때문에 깨어졌으니 포켓몬 고 게임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다. 덕분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 유명한 명작 <키스> 앞에서 당당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인증샷을 찍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포켓몬 고 열풍 스토리텔링의 힘

포켓몬 고 열풍이 불자 예상됐던 이야기가 즉각 터져 나왔다. “우리 나라가 명색이 IT 강국이고 게임 강국인데 포켓몬 고 같은 게임 하나 왜 못 만드냐”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도 포켓몬 고 비슷한 게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포켓몬 고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만한 게임은 그저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포켓몬 고 게임의 성공 요인은 증강현실



(AR)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포켓몬 고에 적용된 증강현실 기술은 그리 새롭지도, 아주 대단하지도 않다. 국내 벤처 기업들도 얼마든지 당장 구현 가능한 초보적 기술이다. 이미 5년 전 국내에서도 KT가 포켓몬 고와 비슷한 ‘올레 캐치캐치’란 증강현실 게임을 출시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포켓몬 고는 성공했고 올레 캐치캐치는 실패했다. 이들의 성패를 가른 요인은 기술력이 아니라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의 힘이었다.

닌텐도가 포켓몬이란 캐릭터를 처음 세상에 선보인 것이 1996년이다.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캐릭터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어져 있다. 포켓몬 마스터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포켓몬을 수집하고 이를 육성시켜서 대결한다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런 기반이 있었기에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고, 포켓몬 캐릭터들을 매장에서 구매하면서 20년 간 성장해 온 사용자들의 마음이 다시 포켓몬 고 게임으로 쏠린 것이다. 결국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이다.

미국 히어로 만화의 양 대 산맥 마블과 DC는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자사 소속의 다양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어벤저스 시리즈나 저스티스 리그처럼 이들이 다시 얹히고 설키키는 식

으로 스토리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왔다. SF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스타워즈>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거대한 서사 구조를 완성시켜 나갔다. 판타지 영화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반지의 제왕>도 오랜 북유럽 신화 속에 묵혀 있던 수많은 종족과 괴물들을 스크린 위로 끌어내 캐릭터화에 성공시켰다. 이렇듯 성공한 문화 상품은 그 배후에 다 저마다의 고유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전략은 고사하고 당장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마땅한 캐릭터도 없는 마당에 증강현실 기술에 투자와 지원만 확대한다고 포켓몬 고처럼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뚝딱 만들어져 나오리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풍부한 국내 자원

진득한 숙성과정 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잘 찾아보면 발굴해서 성장시킬만한 자원은 많이 있다. 멀리는 고대 설화와 전설 속 캐릭터에서부터 가깝게는 웹툰, 창작 애니메이션, 그리고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류 스타들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자원은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위

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늘 단발적이고 고립적인 방식으로 그치고 말았다. 구미호는 수십 년 동안 여름 한 철 납량특집 아이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뾰로로나 꼬마버스 타요가 인기를 끌면서 애기공룡 둘리는 어린이들의 대통령 왕좌를 물려주고 뒷방으로 사라졌다. 그 많은 아이돌 한류 스타 중에 팬들과 함께 나이를 먹으며 오랜 세월 활동을 이어가는 이는 극히 드물다.

성공적인 스토리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캐릭터들을 키우면서 서로를 연결시켜 나가고 여기에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면서 숙성시켜 나아가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토리로 자리잡는 것이다. 포켓몬 고가 증강현실 게임으로 인기를 끈다고 이렇게 숙성시킨 캐릭터가 꼭 증강현실 게임에 등장할 필요도 없다.

기술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기 마련이다. 탄탄한 스토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때그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그것을 활용하면 그뿐이다. 뾰로로나 둘리가 함께 꼬마버스 타요를 타고 활약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어낼 창의성과 문화적 역량 그리고 진득하니 긴 호흡만 있다면 더 이상 포켓몬 고의 성공을 부러워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참여마당

이경서
(언론정보학 2016)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일전에 ‘그들이 셈만 타는 이유’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읽은 적이 있다. 20대의 남녀가 연애를 망설이고 연락만 이어나가는 이유가 생활고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분위기 있는 가게에서 두 사람이 한 끼 먹으면 2만원은 예상고, 디저트로 커피만 한 잔씩 마셔도 만원이다. 지갑열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어느새 연애는 사치가 되고, 결혼하려면 연애 안하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형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에는 환상에 가까운 드라마나 가상연애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으며, SNS에는 연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이트 장소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실과 반대로 눈은 점점 높아지는 모순이다.

필자가 얼마 전 종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주문한 탕수육이 많다면, 탕수육을 몇 조각 덜어서 필자에게 나눠주었다.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손사래 치며 받으라는 노부부의 말씀에 감사하고 탕수육을 받았다. 새삼스레 노부부의 대화 내용에 신경이 쓰여 언뜻 들어보니, 시장을 보기 위해 두 분이 서로 나오신 듯 했다. 아마도 그 노부부는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해보였고, 낯선 청년과 선뜻 음식을 나눌 만큼 마음이 부유한 분들이었다. 한 강의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결혼은 30점짜리 남자와 35점짜리 여자가 만나서 100점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노부부는 첫 만남에서 서로 100점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100점을 완성한 행복한 한 쌍으로 보였다. 그 노부부의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가 부유하지만, 살기 좋은지는 모르겠다. 사랑조차 지갑사정을 걱정하고, 서로의 조건을 따지고 간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보취급 당하는 시대다.

생활고·얇은 지갑의 이유로 후회하기 보다

꾸밈없이 마음껏 사랑해보자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아닐까? 한 교수님을 취재하다가 들은 이야기다. 요즘 학생들은 꿈에 대한 강박증에 빠져서 정작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 꿈이라는 것도 고작 공무원, 건물주 같이 시시한 것들인데, 그런 ‘겉으로 드러낼 꿈’이 없으면 허송세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짧았을 때 망해도 보고, 미친 듯이 사랑해도 봐야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그려졌다.

그러고 보니 나도 언젠가부터 남과 나를 비교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이 생긴 것 같다. 자신을 주어진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이 힘든 이유는 ‘지갑이 얇아서’라기 보다, 꾸밈없는 모습을 사랑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껏 사랑하자. 일단 거울에 비친 자신부터.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문화

사람 없이 신뢰로 운영되는 ‘병윤네 무인마트’

학교 조경담당 공병윤 직원

기호웅 기자 kihodori2@knu.ac.kr

#. 무더위가 절정을 달했던 8월 여름날, 서천동 사거리 달궈진 아스팔트 대로변에 포장마차 하나가 덩그러니 서있다. ‘병윤네 무인마트’다. 띄약볕 아래 포장마차는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다. 허름한 모습에 발걸음이 망설여지지만 ‘병윤네 무인마트’는 인근 주민과 자취생 사이에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다. 지난달 17일, 3년 째 같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병윤(55) 씨를 만나 봤다.

‘병윤네 무인마트’는 이름 그대로 사람 없이 운영되는 야채가게다. 줄지어 있는 야채봉지를 골라 구매액수만큼 바구니에 돈을 넣어 계산하면 된다. 이런 낯선 가게운영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실체를 궁금해 한다. 무인마트를 운영하는 공병윤씨는 사실 우리학교에서 조경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학교 일을 마무리한 후 저녁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가게를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무인마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공 씨는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기 전엔 39년간 제과제빵사로 일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제빵시장 환경에서 동네빵집 운영은 쉽지 않았다. 공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빵집들이 등장하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빵집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돼어요.”

하지만 뺑집폐점이 오히려 인생의 전화
위복이 됐다는 공 씨, 이 기회에 오래 전부
터 꿈꿔오던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는 일도, 처
음 농사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
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하루 종
일 밭에 나가있어도 힘든 줄 모르고 어느
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곧 농사일이 손에
이여주”

그는 좁디좁은 주방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길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처음엔 작은 규모의 임차농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인들에게 성실성을 인정받으며 약 200여 평으로 규모를 늘렸다. 학교 근처 야지에서 생사되는 곤씨네 야채는 매일



3년 전부터 무인으로 운영되는 '병윤이네 무인마트' 와 공병윤씨

신선한 상태로 무인가게에서 손님맞이를 준비한다.

무인가게라 하면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어쩌지?’, ‘바구니에 있는 돈을

학교 일로 가게를 돌볼 시간이 없어
무인 마트를 운영하게 됐어요. 무인
마트다보니 돈과 물건이 10% 정도
유실되고 있지만 가게의 취지를 이해
해주는 사람들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결정 염이요

그냥 가져가면 어쩌지?”라고 우려할 것이다. “사업 초기에는 30%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가게의 취지를 이해하기 시작해 선지 도난사고는 점차 줄어들어요. 지금도 물건과 돈이 10%정도 유실되고 있지만 무인마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병윤네 무인마트’에는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모형이다. “진짜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도난사고에 의한 손실보다도 무더운 낙씨로 인한 높은 물고기해가 더 크다. 곤 씨는 학교 일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가끔 무인마트 학생들이 자신을 알아보거나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다고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도 곧잘 ‘병윤네’를 하는데 신기하며 고맙다는 말을 한다. 무인운영과 포장마차와 임대료가 빠져 ‘병윤네’ 판매되는 야채들은 다른 야채들에 비해 한 편이다. 또한 그는 하는 모든 야채들은 고객들이 기 때문에 맛이 좋다.

는 “우리가게에서 취급하는 주 야채는 상
추인데 올여름 무더위로 인해 이파리가 모
두 타버렸어요”라며 흉작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공 씨는 학교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학교 일이 끝나고 가끔 무인마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사해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학교의 외국인 학생들도 곧잘 ‘병윤네 무인마트’에 방문하는데 신기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병윤네 무인
마트’에는 매일 30여 봉지의 야채들을 각
각 1,000원에 제공하면서 신선함과 저렴함
모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을 부탁하자 공 씨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에 공부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학생들 힘냈으면 좋겠어. 내가 감히 쉽게 조언 할 수는 없지만 직업의 안정성만을 쫓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일단 시작해보길 권하고 싶어요”라며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식으로 점포를 내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는 오늘 날 취직 또는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적잖은 울림을 주고 있다.

The image features the DGIST logo at the top center, consisting of the letters 'DGIST' in a stylized font with blue and pink outlines. Below the logo is a white rectangular box containing the Korean text '2017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Underneath this box is a statement in Korean about the university being a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science and technology. The bottom half of the image shows a nighttime view of the DGIST campus, with its modern buildings and green landscaping illuminated against a dark sky.

|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 | 전공별 모집과정 |
|--|--|---|
| 10.13 ^{Thu} ~ 10.27 ^{Thu} | | 전공 |
| 전공 오픈랩 | |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
| |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
| | | 로봇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 |
| | |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진학 가능 |
| 일시 | | 장소 |
| 9.24(토) 12:00~17:00 | | DGIST 컨실리언스홀 L29 및 각 전공별 장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GIST 무료셔틀버스 운행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시외 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p>※ 위 오픈랩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입학홈페이지 참조)</p> | | |
|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 | 장학혜택 및 특전 |
| | |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
| | | 분류 |
| | | 내용 |
| | | 납입금 면제 |
| | | 전원 국비정학생 선발 |
| | |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
| | | 기술사 입주 |
| | | 전원 입주 가능 |
| | | 해외연수 실시 |
| | |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ü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
| | | 전문연구요원 편입 |
| | |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
| | |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9개 센터 (DGIST-IBNL 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융합 연구센터, DGIST-ETH 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웰니스융합연구센터, 핵심단백질자원센터, 웰에이징연구센터)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
| 신청방법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an style="font-size: 1.5em |